

## 교정시설내 살인범들의 MMPI 점수에 근거한 규율위반 예측\*

공 정 식	이 수 정*	이 민 식
수원구치소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분류심사과	범죄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살인범들의 교도소내 규율위반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MMPI의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처음 규율위반까지의 시간을 통제하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d와 Ma 척도가 규율위반을 효과적으로 예측해내는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Pd 척도와 Ma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살인재소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성별과 전과력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Pd 척도의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반사회성은 모든 종류의 위법행위와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에서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초기 구금기간 동안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초기 규율위반은 구금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부적응의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주요어 : MMPI, 규율위반, 살인범, Cox 회귀분석, 위험성예측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수원시 영동구 이의동 산 94-6  
TEL : 031-249-9198 / E-mail : suejung@kyonggi.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출현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형사사법 기관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살인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살인범들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살인연구들(박순진, 2006; 이승묵, 2005; 임준태, 2005; 김영희, 2004; 박형민, 2004; 김은주, 2003; 김진혁, 2002, 이준걸, 2000)은 살인사건에 대한 실태연구 등 주제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살인범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데, 이는 특히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장기 수용자들 중 살인범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장기 수용자들의 규율위반 및 각종 교정사고 유발가능성과 출소 후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 수용자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살인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의 경우, 법무부 통계(2006)에 의하면, 수용자들 중 상해범을 제외하면 살인(강도살인 포함)범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5년도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885건으로 전년도 대비 38.8%가 증가하였다. 그 중 수용자들의 직원 폭행(폭언)은 60%, 수용자간 폭행사고는 32.6% 증가하였다. 이 같은 규율위반자들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25개 죄명 중 살인범이 차지한 비율은 9.1%였다. 이는 상해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이들의 규율위반의 내용을 보자면 이들의 위험성이 상당한 수위에 다다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살인범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수용자간 폭행과

상해(57.5%)였고, 다음으로 직원폭행(19%) 등의 순이었다. 수용자들의 규율위반이 이들의 미래 준법행위에 유의한 예측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은 규범행동에의 위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Edens, Buffington-Vollum, Colwell, Johnson, & Johnson, 2002; Lee & Edens, 2005).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안에서도 관규위반 등의 규율위반 행위는 반사회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로 측정된 반사회성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저지르는 규율위반 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정신장애 진단용 검사로 분류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MMPI는 13개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는데, L·F·K는 타당도 척도이고 나머지 10개는 임상척도이다. 살인범의 MMPI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는 Blackburn(1968)의 연구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데, 연구자는 살인범들이 임상척도들 중에서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 등에서 일반 범죄자들보다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폭력범죄자의 MMPI에 대한 이전의 연구(Megaree, 1977; Megaree & Bohn, 1977)들을 살펴보면,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은 성격적 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Cornell, Miller와 Benedek(1988)은 36명의 소년 살인범들을 도구적인 살인과 대인간 갈등에 기인한 살인으로 구분하고<sup>1)</sup> 이들 두 집단의 성격특징을 18명의

소년 절도범들의 성격유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구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소년들은 MMPI의 하위척도 중 F, 건강염려증(Hs), 히스테리(Hy), 그리고 정신분열증(Sc) 척도에서 대인간 충돌로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절도만 한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특히 Megargee와 Bohn(1977)은 폭력범죄자들의 MMPI 점수 상에서 나타난 특성은 10가지 프로파일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표 1). 예컨대 폭력범죄자들 중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은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 반사회성(Pd)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비타협적이고 냉소적이며 물질에 밝고 반사회적인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Holcomb, Adams와 Ponder(1985) 역시 80명의 살인범들로부터 얻어진 MMPI 점수를 분석하여 5가지의 이질적인 성격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Megargee 등과 유사하게 MMPI의 변별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으로 수형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Bartol, 1991; Bukstel & Kilman, 1980)은 수용자들의 성격특성은 수형생활이 진행되어 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용자들의 심리특성에 관한 유형화 작업은 대부분 방법론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즉 수형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형자들의 심리적 부정성은 개인적인 특성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심화된다는 것이다(Haney & Zimbardo, 1998; MacKenzie & Goodstein, 1985; 공정식, 1995). 하지만 개인차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Lykken, in press)도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는 MMPI의 반사회성(Pd)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광배, 2001). 즉 “수형기간”의 변화에 따라 장기수형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인데(신연희, 2006),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해서 폭력범죄자들의 MMPI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Cornell, et al., 1988; Kalichman, 1988; Holcomb et al., 1985; Anderson & Holcomb, 1983; Holcomb & Adams, 1983; Sutker, Allain, & Geyer, 1978).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내 살인범들의 MMPI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살인범들과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 간에 나타나는 MMPI상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내의 징벌 위반자들에 관한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2000)의 연구에서는 살인범이 다수 포함된 상습 규율위반자들의 MMPI가 소개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번 이상 징벌을 받았던 상습 징벌자 집단이 일반 수형자 집단보다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척도 상에서 적응도가 더 나쁘며, 나아가 징벌회수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가장 변별력 있는 정신건강 지표는 반사회성(Pd)이 아니라 정신분열증(Sc) 척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이수정 등(2000)의 연구가 수용기간 중 문제행동과 동시대적 변수들 간의 상관연구에 그쳤던 것을 장기종단적으로 시일을 소요하여 예측연구를 수행하고자 시도하였다. MMPI와 미래 범죄행위를 연관지우는

1) 도구적 살인과 표현적 살인이라는 구분은 범죄학 분야에서 범행을 동기별로 분류하는 경우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가택침입 절도 혹은 강도의 경우 피해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살인은 도구적 살인으로, 분노나 원한이 이유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등은 표현적 살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표 1. MMPI 점수를 근거로 한 수형자 프로파일

유형	특 성
Item	MMPI의 거의 모든 척도가 70점 이하로서 점수분포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교정당국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적은 편이다.
Easy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분포를 가진다. 종종 Hy와 Pd는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나 프로파일은 오른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가진다. 이들은 명석하고 안정적이며, 적응을 잘하며, 좋은 인적 지원세력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다.
Baker	이 유형은 전형적으로 Pd와 D 척도가 약간 높으며 오른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지니는 점수 분포를 지닌다(중간 정도). 부적절하고 불안해하며, 활동이 위축되고, 독단적이며, 알콜남용의 경향이 있다.
Abel	Pd와 Ma 척도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지닌다. 이들은 충동적이며, 조작적인 면도 있으나 매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구급에도 비교적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orge	이 유형은 Baker와 유사한 점수분포를 가지나 Hs, D, Hy 척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분포를 지닌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순종적이지만 불안해하며, 학습된 범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고, 종종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elta	Pd 척도에는 중간 이상 높은 정도에 이르는 점수분포를 가지나, 나머지 척도는 점수분포가 70이하이며, 비도덕적, 쾌락주의적, 자기중심적, 조작적이나 명석하며, 동료나 권력기관 등과 관계가 좋지 않은 충동적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Jupiter	오른쪽으로 오르막 경사를 가지는 중간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점수분포가 있으며 전형적으로 Sc, Ma, Pt에서 높은 점수를 지닌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출소 후에 더 잘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Foxtrot	이 유형은 8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몇몇 척도에서 기록하고 간혹 기타 척도에서도 7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다. Sc, Ma, Pd의 3 가지 척도가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오르막 경사를 보인다. 이들은 강인하고, 서민생활의 물정에 밝으며, 냉소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결점이 있고, 지나칠 정도로 범죄경력이 많으며, 교도소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rlie	80이 넘는 척도가 있고 일부 척도도 70이 넘는 높은 점수분포가 있으며, 전형적으로 Sc, Pa, Pd 척도의 고도가 가장 높으며, 오른쪽 오르막으로 경사가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적대적이고, 염세적이며, 격리되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과경력도 많으며 복합적인 약물남용의 경험도 기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ow	적어도 3가지 척도가 70이상의 T점수를 보이는 가장 높은 점수분포를 가지며, 특히 개별적 척도에 대한 점수분포라기보다는 복수의 점수분포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불안정하고, 흥분되고, 정신적 장애와 문제를 기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예측연구로는, 이수정, 공은경, 공정식(2006)의 연구가 있는데, 출소 이후 평균 5년 정도 소요된 재범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MMPI 하위 척도들은 살인범들의 재범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MMPI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준거척정치와 MMPI 점수간 동시대적 상관연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준거척정치와 미래의 행위인 경우에는 MMPI 하위척도들의 예측력이 우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미래의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의 유용도에 관한 찬반의 결과가 혼입되어 있는 외국의 연구결과들(Edens, Buffington-Vollum, Colwell, Johnson, & Johnson, 2002; Steadman, Silver, Monahan, Appelbaum, Clark-Robbins, Mulvey, E., 2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내 형

사사법 체제 내에서 MMPI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보다 많은 예측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용기간 동안의 규율위반 행위의 예측치로서 MMPI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인 바, MMPI 하위척도 중 정신분열증(Sc)척도와 반사회성(Pd)척도가 유의한 예측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용대상자 군 중 장기수용자에 속하는 살인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수용기간 중 문제행동의 예측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연구방법

### 피조사자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 포함되었던 살인범들의 자료는 2005년 12월말까지 전국 교정시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범주	빈도(%)	구분	범주	빈도(%)
성별	남자	195명(84.8%)	혼인상태	미혼	113명(49.1%)
	여자	35명(15.2%)		결혼	64명(27.8%)
최종학력	초졸이하	34명(14.8%)		이혼/별거	44명(19.1%)
	중학중퇴	29명(12.6%)	무직	107명(46.5%)	
	중학졸업	30명(13.0%)	종업원	13명(5.7%)	
	고등중퇴	20명(8.7%)	운전수	5명(2.2%)	
	고등졸업	76명(33.0%)	소규모자영업	27명(11.7%)	
	대학이상	33명(14.3%)	직업	단순노동	16명(7.0%)
				회사원	7명(3.0%)
종교	없음	21명(9.1%)	기능공	14명(6.1%)	
	있음	203명(88.3%)	농어업	8명(3.5%)	
			학생	13명(5.7%)	
			기타	16명(7.0%)	

에 수용되어 있는 살인범 4,104명들 중에서 MMPI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그 결과 총 233명(5.7%)의 MMPI 검사결과와 기록조사(판결문, 전과기록, 수형자분류심사표 등)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중 기록조사에서 결측치가 많이 포함된 표본 3명은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살인범이 195명(84.8%) 이었고 여자살인범은 35명(15.2%)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의 성별 구성 비율에서 여성의 12.2%와 근접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범죄백서, 2005). 구체적으로 보면,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47.3%였으

표 3. 최초비행연령 및 범죄경력 특성

구분	범주	빈도(%)	비고
최초비행 연령	10대	82명(35.7%)	M=24.05 SD=8.287
	20대	81명(35.2%)	
	30대	42명(18.3%)	
	40대이상	12명(5.2%)	
전체전과	초범	85명(37.0%)	M=3.42 SD=2.924
	2범	31명(13.5%)	
	3범	25명(10.9%)	
	4범이상	83명(38.6%)	
실형전과	초범	124명(53.9%)	M=2.04 SD=1.602
	2범	40명(17.4%)	
	3범	28명(12.2%)	
	4범이상	31명(16.5%)	

표 4. 본 범죄 관련 특성

구분	범주	빈도(%)	구분	범주	빈도(%)
범행시 연령 M=24.05 SD=8.287	10대	23명(10.0%)	피해자-가해자 관계	완전 타인	68명(29.6%)
	20대	90명(39.1%)		형식적타인	68명(29.6%)
	30대	77명(33.5%)		친밀한타인	19명(8.3%)
	40대	32명(13.9%)		아내살해	19명(8.3%)
	50대이상	8명(3.5%)		남편살해	25명(10.9%)
범죄권역	서울특별시	41명(17.8%)	양형	준비속살해	13명(5.6%)
	경기도	52명(22.6%)		친인척살해	17명(7.4%)
	충청권	28명(12.2%)		10년미만	17명(7.3%)
	전라권	30명(13.0%)		20년미만	83명(36.9%)
	경상권	65명(28.3%)		25년미만	17명(7.9%)
살인유형	강원도	14명(6.1%)	수감기간 M=113.32 SD=55.569	무기형이상	108명(48.0%)
	가족살인	77명(33.5%)		5년미만	34명(14.8%)
	강도살인	75명(32.6%)		10년미만	104명(45.2%)
살인동기	강간살인	78명(33.9%)	15년미만	50명(21.7%)	
	도구적	85명(37.0%)	15년이상	42명(18.3%)	
	표출적	144명(62.6%)			

며, 중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은 21.3%였다. 종교는 88.3%가 종교가 있다고 답변을 했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자가 49.1%였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전체의 46.5%로 가장 높았고 직업 유형은 학생 등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는 최초비행연령 및 범죄경력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대상인 살인범들의 최초비행연령의 평균은 약 24세이며, 10대에 처음 비행한 경우가 35.7%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범죄경력을 보기 전에 여기서 전체전과란 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벌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경우의 전과를 말하며, 실형전과란 자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과를 의미한다. 먼저 전체전과의 평균은 3.4회였고 실형전과의 평균은 2.0회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실형전과의 경우 2범 이상자의 비율이 48.1%로 집계되었다.

표 4는 본 범죄관련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범행 시 평균연령은 24세였으며, 살인유형별로는 가족살인·강간살인·강도살인이 각각 30%대로 표집되었고, 살인동기는 62.6%가 표현적 동기(expressive motive)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을 살해한 비율이 67.5%로 높게 집계되었으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살해의 비율도 32.5%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살인범들의 양형을 보면 48.0%가 무기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감기간은 60%가 10년 미만이었으며, 평균 약 9년 4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MMPI**

교정시설에서 형 확정 후 신입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심리검사의 종류는 인성, 지능, 적성 검사 등이다. 그 중 인성검사는 2002년까지 MMPI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용되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법무부에서 자체 개발한 교정심리검사가 MMPI 대신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분류심사 시 MMPI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로서 45개국에서 115종류 이상의 번역판이 출판되어 있고 12,000가지 이상의 연구논문이나 저서가 발표되어 있다. 국내판 MMPI의 신뢰도에 관하여 임영란과 안창일(1997)은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정상인 집단에서 .68-.78, 대학생 집단에서 .64-.87, 정신과 환자집단에서 .74-.92의 분포를 보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경우 MMPI 각 하위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2-.83이었다.

**규율위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속하는 규율위반의 특성을 표 5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규율)의 내용과 위반 빈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6호까지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30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며, 7-12호까지는 20일 이하의 금치내지 6월 이내의 작업상여금 삭감, 13-2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금치 또는 4월 이내의 작업상여금의 삭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규율을 위반한 빈도를 보면, 살인범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가장 많이 범한

2) MMPI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는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자들을 심사할 때 교정시설내 분류 심사담당자가 필요하면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표 5. 살인범들의 규율위반의 빈도

번호	내용	빈도(%)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43(18.7)
2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6(2.6)
3	교도소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
4	방화·도주 등 교정사고를 제공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소지·수수·은닉하는 행위	-
5	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 등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14(6.1)
6	계구·도주방지시설 등 보안시설·장비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7	교도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8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0.9)
9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10	교도작업, 교육훈련,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교도소 등에서의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11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 등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6(2.6)
12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1.7)
13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2(0.9)
14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취식하거나 자해하는 행위	-
15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16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0.4)
17	고의로 수용자번호표·거실표·작업장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
18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수수 또는 교환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4(1.7)
19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을 유발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20	도박 그 밖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내기를 하는 행위	5(2.2)
21	교도작업·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2(9.6)



관규위반 내용은 중대한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전체의 18.7%였으며, 다음으로 교도작업·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가 9.6%였고, 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 등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가 6.1% 순이었다. 따라서 살인범들의 규율위반의 내용은 중대한 위반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방법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를 활용하여 MMPI 하위척도간 상관관계, 평균차이,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ox 회귀모형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 속하는 방법이다. 생존분석은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을 통제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특히 Cox 회귀모형에서는 생존시간과 관련된 위험함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성현·조신섭·김성수, 2004). 본 연구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살인범이 입소 후부터 수용생활 중에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생존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 성별·범수별 규율위반 빈도

일단 성별·범수별 규율위반 유무를 교차분

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규율위반 빈도는 남성 살인범은 49.7%가 규율위반이 최소 1회 이상 있었던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37.1%가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수별로는 3범 이상 상습범의 규율위반율이 52.5%로 높게 나타났으며, 2범 이하의 경우에는 45.1%로 3범 이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 = 9.78, *p < .05$ )<sup>3)</sup>.

#### MMPI의 하위척도별 상관관계

MMPI 하위척도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표 6), 히스테리(Hy)와 건강염려증(Hs)이 .8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강박증(Pt)과 우울증(D), 정신분열증(Sc)과 F척도, 정신분열증(Sc)과 편집증(Pa), 정신분열증(Sc)과 강박증(Pt), 내외향성(Si)과 우울증(D), 편집증(Pa)과 F척도가 .6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염려증(Hs)과 L·K척도, 우울증(D)과 L척도, 히스테리(Hy)와 L·K척도, 남성-여성(Mf)과 L·F·K·우울증(D)·반사회성(Pd), 편집증(Pa)과 남성-여성(Mf), 강박증(Pt)과 L·남성-여성(Mf), 정신분열증(Sc)과 남성-여성(Mf), 경조증(Ma)과 건강염려증(Hs)·우울증(D)·히스테리(Hy)·남성-여성(Mf), 내외향성(Si)과 반사회성(Pd)·남성-여성(Mf)·경조증(Ma)을 제외한 하위척도들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관계수들은 하위척도들 간의 관련성이 상당히 타당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상습범에 대한 정의는 범죄학 분야의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종범죄의 경우 2범 이상을, 이종범죄의 경우 3범 이상을 상습범이라 정한다.

표 6. MMPI 하위척도별 상관행렬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b>F</b>	-.182**											
<b>K</b>	.503***	-.475***										
<b>Hs</b>	.055	.392***	.066									
<b>D</b>	-.085	.430***	-.199**	.589***								
<b>Hy</b>	.044	.308***	.116	.813***	.500***							
<b>Pd</b>	-.163*	.196**	.131*	.259***	.166*	.362***						
<b>Mf</b>	.066	.057	.012	.162*	.033	.161*	.007					
<b>Pa</b>	-.152*	.681***	-.357***	.374***	.397***	.310***	.293***	.118				
<b>Pt</b>	-.065	.557***	-.135*	.580***	.645***	.516***	.284***	.070	.561***			
<b>Sc</b>	-.154*	.780***	-.251***	.563***	.572***	.484***	.341***	.074	.678***	.774***		
<b>Ma</b>	-.209**	.425***	-.371***	.031	-.079	.026	.231***	.007	.412***	.184**	.336***	
<b>Si</b>	-.151*	.392***	-.370***	.363***	.647***	.232***	-.019	.065	.353***	.551***	.522***	-.086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에 따른 MMPI 차이검증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들을 유의도 .05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MMPI 결과를 보면, 평균 차이가 나는 것은 L척도와 반사회성(Pd)이었다(표 7). L척도의 경우 여성의 평균 60.11로 남성의 평균 55.24보다 약 5점정도 높았으며, 반사회성(Pd)척도의 경우 남성의 평균 56.74로 여성의 평균 52.74보다 약 4점 정도가 높았다. 이는 여성 살인범들이 남성살인범들보다 더 방어적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여성 살인범보다는 남성살인범들이 더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범수에 따른 MMPI 차이검증

범수별 MMPI 하위척도간에 평균차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표 8). 범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척도는 L, K, Pd, Ma척도였다. 타당도척도 중 L과 K척도의 경우 상습범보다 2범 이하 살인범의 평균값이 약 5점 정도 높았고, 임상척도에서는 Pd척도에서 2범 이하보다 상습범의 평균값이 약 5점 이상 높았고, Ma척도에서는 약 4점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2범 이하의 경우에는 상습범에 비하여 자기방어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3범 이상의 상습범의 경우에는 2범 이하보다 반사회성이 높고, 경조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MMPI 하위척도의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MMPI 하위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남자 평균 (표준편차) (N=195)	여자 평균 (표준편차) (N=35)	t
L	55.98(10.93)	55.24(10.73)	60.11(11.25)	-2.457*
F	49.07(9.70)	49.06(9.32)	49.09(11.74)	-.013
K	55.75(11.64)	55.34(11.74)	58.03(10.95)	-1.261
Hs	51.49(11.06)	51.54(10.97)	51.20(11.71)	.166
D	48.13(10.25)	48.13(10.21)	48.14(10.63)	-.007
Hy	52.18(9.90)	52.64(9.71)	49.63(10.68)	1.664
Pd	56.13(10.14)	56.74(10.06)	52.74(10.08)	2.163*
Mf	51.57(10.12)	51.95(9.79)	49.49(11.75)	1.327
Pa	52.60(9.79)	52.47(9.43)	53.31(11.75)	-.468
Pt	50.61(10.17)	50.69(9.55)	50.14(13.29)	.293
Sc	50.07(10.86)	50.04(10.36)	50.20(13.51)	-.080
Ma	49.68(9.84)	49.55(9.71)	50.37(10.65)	-.452
Si	48.39(11.02)	48.25(11.09)	49.14(10.81)	-.441

\* $p < .05$

표 8. MMPI 하위척도의 범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MMPI 하위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2범이하 평균 (표준편차) (N=116)	3범이상 평균 (표준편차) (N=108)	t
L	55.98(10.93)	57.28(11.06)	52.26(10.04)	3.043**
F	49.07(9.70)	48.56(9.64)	50.40(10.10)	-1.228
K	55.75(11.64)	57.10(11.61)	52.22(11.39)	2.762**
Hs	51.49(11.06)	51.88(11.49)	50.86(9.97)	.605
D	48.13(10.25)	48.41(10.80)	47.33(8.60)	.767
Hy	52.18(9.90)	52.13(10.38)	52.29(9.05)	-.105
Pd	56.13(10.14)	54.69(9.92)	59.86(9.97)	-3.432***
Mf	51.57(10.12)	51.76(10.04)	51.45(10.12)	.200
Pa	52.60(9.79)	51.90(9.79)	54.56(9.74)	-1.795
Pt	50.61(10.17)	50.49(10.56)	51.10(8.80)	-.398
Sc	50.07(10.86)	49.56(11.19)	51.46(10.02)	-1.146
Ma	49.68(9.84)	48.47(9.48)	52.54(9.73)	-2.810**
Si	48.39(11.02)	48.58(11.58)	48.14(9.22)	.261

\* $p < .05$ , \*\* $p < .01$ , \*\*\* $p < .001$

규율위반 유무에 따른 MMPI 차이검증

표 9는 살인범들이 MMPI 하위척도 상에서 규율위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규율위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척도는 건강염려증(Hs), 히스테리(Hy), 남성-여성(Mf), 경조증(Ma), 내-외향성(Si)척도였다. Hy척도에서는 규율위반의 경험이 없는 살인범이 규율위반의 경험이 있는 살인범보다 평균값이 약 5점 정도 높았고, Hs 척도에서 약 4점 정도 높았으며, Mf와 Si척도에서는 약 3점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Ma척도에서는 규율위반의 경험 있는 살인범이 규율위반의 경험이 없는 살인범보다 평균값이 약 3점 정도 높았다. 따라서 규율위반 경험이 없는 살인범이 규율위반 경험이 있는 살인범보

다 더 히스테리성향이 강하고 건강염려증이 높으며, 남성적 성향이 강하고 외향적 성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규율위반 경험이 있는 살인범이 규율위반 경험이 없는 살인범보다 더 경조증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MPI에 따른 규율위반 예측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살인범들의 규율위반을 예측함에 있어 MMPI 하위척도들이 유용성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규율위반 여부를 상태변수로 하여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재소자는 수감 후 얼마 되지 않아 규율을 위반할 것인가 또 다른 재소자는 상당시간이 소요된 다

표 9. MMPI 하위척도의 규율위반유무별 평균 및 표준편차

MMPI 하위척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규율위반무 평균 (표준편차) (N=121)	규율위반유 평균 (표준편차) (N=109)	t
L	55.98(10.93)	57.70(10.58)	54.34(11.11)	1.965
F	49.07(9.70)	48.68(9.94)	48.28(8.72)	.261
K	55.75(11.64)	57.18(11.91)	54.46(9.86)	1.516
Hs	51.49(11.06)	52.94(11.77)	48.54(9.59)	2.670**
D	48.13(10.25)	49.57(10.49)	46.71(9.63)	1.758
Hy	52.18(9.90)	53.97(10.34)	48.80(9.05)	3.274***
Pd	56.13(10.14)	55.18(9.05)	55.81(11.34)	-.407
Mf	51.57(10.12)	52.85(9.76)	49.34(10.80)	2.184*
Pa	52.60(9.79)	52.36(9.90)	51.81(9.53)	.350
Pt	50.61(10.17)	51.18(10.19)	48.80(10.56)	1.456
Sc	50.07(10.86)	50.28(10.50)	48.54(11.47)	1.006
Ma	49.68(9.84)	48.48(9.82)	51.93(8.32)	-2.325*
Si	48.39(11.02)	49.78(10.32)	46.21(11.32)	2.099*

\*  $p < .05$ , \*\*  $p < .01$ , \*\*\*  $p < .001$

음에서야 규율을 위반할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한 시간을 통제하여야만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들의 규율위반을 예측해주는 MMPI 하위척도를 변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수감 후 규율을 처음으로 위반하였던 시간을 통제변수인 시간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때 계층변수로는 성별에 따른 재범상습성 여부를 선택하였는데, 남성 피조사자들 중에서는 3범 이상이었던 사람은 28명, 3범 미만이었던 사람은 65명이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가 3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조사자들이 입소 후 처음으로 규율을 위반한 시점까지의 평균시간은 69.36개월(표준편차=52.30)이었다. 피조사자들이 입소 후 관규를 위반하였던 사건은 250개월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살인으로 입소한 후 교정시설에서 관규를 위반하여 징벌 받을 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유의도 .05 수준에서 Cox 예측모형에 포함되

었던 하위척도는 Pd와 Ma였다(표 10). 이 결과는 활동수준과 반사회성이 낮은 살인재소자들일수록 교정시설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관규를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MPI 하위척도들이 포함되었던 Cox모형의 -2 log likelihood 값은 578.03이었고 MMPI를 예측치로 포함하여 추가로 획득된 설명량의 변화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chi^2_{13} = 22.53, p < .05$ ). 그림 1에는 입소 후 첫 규율위반 시까지의 재소자들의 생존율을 예측함에 있어 MMPI 하위척도들의 유용성이 계층변수별로 도식화되어 있다.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계층별 차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과 그림 1을 보면, Pd와 Ma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처음으로 규율위반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사람들만 규율을 위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위배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MMPI의 Pd만을 시설 내 적응에

표 10. Cox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L	-.002	.015	.024	1	.877	.998
F	.033	.025	1.649	1	.199	1.033
K	.017	.017	.971	1	.324	1.017
Hs	-.008	.019	.155	1	.694	.992
D	.019	.018	1.063	1	.302	1.019
Hy	.018	.021	.731	1	.392	1.018
<b>Pd</b>	<b>-.032</b>	<b>.015</b>	<b>4.763</b>	<b>1</b>	<b>.029</b>	<b>.968</b>
Mf	-.006	.011	.274	1	.601	.994
Pa	-.001	.018	.004	1	.952	.999
Pt	.023	.020	1.296	1	.255	1.023
Sc	-.009	.023	.157	1	.692	.991
<b>Ma</b>	<b>-.037</b>	<b>.016</b>	<b>5.813</b>	<b>1</b>	<b>.016</b>	<b>.963</b>
Si	-.026	.014	3.660	1	.056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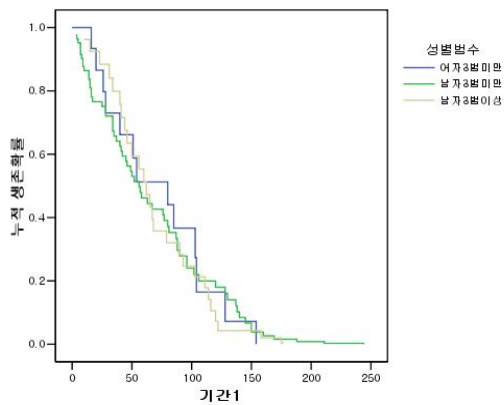


그림 1. MMPI에 근거한 첫 번째  
규율위반까지의 생존분석

있어 중요하게 간주하는 선행연구들(Revitch, Schlesinger, 1981; Cornell, Miller, Benedek, 1988) 과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본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규율위반까지의 시간을 통제하였다는 점인데, 즉 이는 구금시설 수용이라는, 개인으로 보자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추측해볼 수 있다. 전과가 많고 수용경험이 많은 반사회적인 살인범일수록 교도소의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할 것이며 오히려 초범자이며 성격적으로도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도소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는 구금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감의 초기기간 동안에는 부적응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표 10의 결과는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료를 보강한다면 MMPI의 반사회성 척도가 규율위반의 빈도나 상습성, 규율위반의 내용 등과 어떻게 연관성을 맺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수용의 초

기기간에 발생하는 규율위반의 경우에는 수용자 개인의 범죄적 성향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는 일종의 단기 부적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를 통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MMPI 하위척도 중 Pd 척도이다. 이전의 연구(이수정 등, 2000)에서는 3범 이상 징벌을 받았던 상습징벌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D, Hy, Pd, Pa, Pt, Sc 척도 등에서 모두 유의하게 더 많은 징후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가 모두 살인범이었다는 차이와, 본 연구에서는 다만 징벌의 빈도만을 동시대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정기간을 소요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예측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징벌을 처음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통제하였다는 것이 이전 연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서 수감 이후 얼마나 징벌을 받지 않고 잘 견디는지 하는 시간을 통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적 연구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의성이 확인되던 결과들이 일정 시간 이후의 준거측정치를 예측하는 Cox 모형이 적용되자 설명력을 많이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심리측정도구와 미래의 실제 행동간의 관련성은 환경의 제약 등으로 해서 예상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둘째 시간변수를 통제하였기에 오히려 초기 규율위반은

구금시설에의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지 살인범의 반항심이나 적대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등이 본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설명기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사회적 살인범의 경우 많은 수가 수형생활에 있어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분류심사 절차나 구금기간 동안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신입심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심리검사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추후 수감생활에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형기단축 등에 유리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살인범의 구금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교도관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 수형자일수록 훗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같은 장기 수감자들의 특성 때문에 범죄성이 농후한 살인범들보다 그렇지 않은 살인범들이 단기간 안에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특히 평균간 차이검증에 있어서도 규율위반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살인재소자 간에는 Pd 척도 점수 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범 이상의 누범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재소자들 간에는 Pd 점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사회적 살인재소자들이 오히려 초기에는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추론을 또 한 번 지지하게 하여 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d 점수와 미래 규율위반 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유형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기간 별로 미래 위험행

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거의 모든 연구들은 심리검사 점수와 범죄행동 간의 관련성을 동시대적 조사시점에서 분석한다. MMPI의 하위 척도들로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이후의 규율위반 행위를 예측하는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이는 본 연구가 나름대로 학술적 의의를 지니는 이유로서 형사사법 현장에서 심리검사 도구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예측타당도를 확인하여 보았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 집단은 비확률적 표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반화의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특히 여성 살인범의 수가 남성살인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호비교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공정식 (1995). 교정현장에서 성격검사의 해석상 재논의: 경교대원과 수형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교정 233, 37-58.

김은주 (2003). 아내에 의한 남편살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 35-61.

김영희 (2004). 남편살해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서울여성의 전화, 11, 27-50.

김진혁 (2002). 살인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지, 13, 111-145.

박순진 (2006). 배우자살해의 유형과 특징,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2, 191-228.

박성현, 조신섭, 김성수 (2004). 한글 SPSS, SPSS아카데미, pp.485-497.

박형민 (2004).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21).
- 법무부 (2006). 2005년도 교정사고 등 통계분석, 보안관리과 통계자료.
- 법무부 (2005). 범죄백서.
- 신연희 (2006). 장기수형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0, 83-108.
- 이수정, 서진환, 이운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19(2), 43-62.
- 이수정, 공은경, 공정식 (2006). MMPI에 근거한 국내 남자 살인범 성격프로파일링 및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47-64.
- 이승목 (2005). 다수살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0, 341.
- 이준걸 (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응, *법학연구*, 5, 227-260.
- 임영란, 안창일 (1997).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31-150.
- 임준태 (2005).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살인사건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지*, 7, 35-61.
- Anderson, W. P. & Holcomb W. R. (1983). "Accused Murderers: Five MMP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761-768.
- Bartol, C. R. (1991).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lackburn, R. (1968). "Personality in Relation to Extreme Aggression in Psychiatric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14, 821-827.
- Bukstel, L. H., & Kilman, P. R. (1980). "Psychological Effects of Imprisonment on Confined Individuals." *Psychological Bulletin*, 88, 469-493.
- Cornell, D., Miller, C., & Benedek, E. (1988). MMPI profiles of adolescents charged with homicid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 401-407.
- Edens, J. R., Buffington-Vollum, J. K., Colwell, K. W., Johnson, D. W., & Johnson, J. K. (2002). Psychopathy and Institutional Misbehavior Among Incarcerated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and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 49-58.
- Goodstein, L., MacKenzie, D. L., & Shotland, R. L. (1984). "Personal Control and Inmate Adjustment to Prison". *Criminology*, 22, 343-369.
- Holcomb, W. R., Adams, N. A. & Ponder, H. M. (1985). The developmental and cross-validation of an MMPI typology of murder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3), 240 - 244.
- Holcomb, W. R., & Adams, N. (1983). "Inter-domain among Personality and Cognition Variables in People Who Commit Mu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525-531.
- Haney, C. & Zimbardo, P. (1998). The past and future of U.S. prison policy: Twenty-five years after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709-727.
- MacKenzie, D. L., & Goodstein, L. (1985). "Long-term Incarceration Impacts and Characteristics of Long-term Offenders: An Empirical



- Analysis". *Criminal Justice Behavior*, 12, 395-414.
- Kalichman, S. C. (1988). "MMPI Profiles of Women and Men Convicted of Domestic Hom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847-853.
- Lee & Edens (2005). Exploring predictors of institutional misbehavior among male Korean inm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 412-432.
- Megargee, E. I., & Bohn. M. J. (1977).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Criminal Offenders: IV. Empirically Determined Characteristics of the Ten Typ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 149-210.
- Revitch, E. & Schlesinger, L. B. (1981). *The Psychopathology of Homicide*.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Thomas.
- Steadman, H., Silver, E., Monahan, J., Appelbaum, P., Clark-Robbins, P., & Mulvey, E. (2000). A classification tree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actuarial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Law and Human Behavior*, 24, 83-100.
- Sutker, P. B., Allain, A. N., & Geyer, S. (1978). Female criminal violence and differential MMPI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141-1143.
- 원고접수일 : 2006. 8. 30.  
게재결정일 : 2007. 2. 1.

## **Predictions Based on MMPI Scores of Rule Violations by Inmates who Committed Homicides**

**JungSick Gong<sup>1)</sup>      SooJung Lee<sup>2)</sup>      MinSik Lee<sup>3)</sup>**

**1) Suwon Detention Center**

**2) Department of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3)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spect that how much subscales of MMPI could predict rule violations in prison for inmates who committed homicide(s). As a result of Cox regression, Pd and Ma measures significantly predicted future rule violations. Inmates with low Pd score and Ma score were likely to violate prison rules when time was controlled. This trend was universal across sex and criminal caree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was prediction direction of Pd subscale. Generally, it is predicted that high level of Pd scale must be related to any kind of rule frictions. However, in correctional facilities, early rule violations are more likely to be observed for people who have low Pd scores. This means that rule violations in prison might not result from ‘antisocial thought’, instead, it must be expressions of maladjustment to the extremely limited living conditions of prisons.

*Keywords : MMPI, rule violations, murderers, Cox regression, risk prediction*